

삼성엔지니어링, 2005년 수익률 제고

삼성증권, 영업이익 705억원으로 감소 ... 삼성그룹 공사가 수익 원동력

삼성증권은 삼성엔지니어링이 2005년 외형은 줄어들지만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는 등 영업이익의 질적 개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1월26일 지적했다.

삼성증권은 삼성엔지니어링의 2005년 예상매출액이 1조3136억원으로 전년대비 20% 감소하고 영업이익도 9% 줄어든 705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하고 저가수주 지양으로 신규수주가 위축되고 공사 진행률 상승으로 수주잔고가 9283억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.

그러나 수익성 위주의 해외 프로젝트 선별수주 전략과 양질의 그룹공사 수익인식 확대, 전사적 자원관리 등 내부역량 강화에 힘입어 영업이익은 줄지만 영업이익률은 2004년보다 0.7%p 높아진 5.4%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, 2005년에는 매출액 감소보다 영업이익률 상승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.

또 삼성엔지니어링이 2005년에는 영업실적이 줄지만 2005년 신규 수주금액이 그룹공사 수주액 6800억원을 포함 1조7950억원으로 2004년보다 68%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.

이에 따라 2006년 주당순익(EPS) 전망치를 1461원에서 1651원으로 13% 상향 조정했다.

<화학저널 2005/01/27>